

변화하는 퇴직연금 제도

기금형 도입, 기업의 역할이 바뀝니다.

한국퇴직연금데이터

GLIDE

COMPLETES RETIREMENT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했지만, 그 이면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고용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이 참여한 노사정 TF가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의 26.5%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인 반면 5인 미만은 10.6%에 그칩니다.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되면 미도입 사업장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관심은 제도 도입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구조와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가가 운용하고 노사가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로,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개념이 한국 퇴직연금에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업의 역할은 사업자 선정에서 지속적인 운용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관리로 확대되며, 수탁자책임 부과, 의무교육 미이행 과태료, 사업자 선정 근거 문서화 등 담당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실제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데이터로 살펴보면, 적립금 규모는 커졌지만 운용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DC형 적립금의 84.5%가 안정형에 집중되어 있어 물가를 감안한 원리금보장형 실질 수익률은 +0.47%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는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동일 위험 등급 내에서도 상품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최대 22.6%p에 달합니다.

2026년 기금형 도입, DB→DC 전환 압력, 수익률 공시 강화로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을 넘어 인재 확보와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라이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영진·인사담당자·근로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도 변화, 수익률 데이터, 사업자 비교, 거버넌스 이슈까지 기업이 퇴직연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원의 안정적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책임의 구조가 바뀝니다

기존 계약형 체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별도의 운용 관리 의무가 없었지만, 기금형 도입과 단계적 의무화 시행으로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 (2026→2030)

기금형 도입

전문가 운용 + 노사 기금운영위원회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감면 3단계 확대
1~10년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11~20년 60%/21년~ 50%(신설)

계약형 (지금까지)

- ✓ (DB) 사업자 선정 후 원리금 보장형 운용이 91.4%
- ✓ (DC) 운영은 퇴직연금 가입자 책임
- ✓ 수익률 낮아도 책임 없음



기금형 (도입 합의됨 / 입법 진행 중)

- ✓ 수탁자 책임 발생 · 기금운용위원회 참여
- ✓ 선정/지속적인 모니터링 거버넌스 필요

담당자가 마주하게 될 법적 리스크

제도 변화에 따라 아래 항목은 법적 의무 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1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

기금운영위원회에 회사 대표가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한 담당자에게 운용 결과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영국에서는 담당자 개인 소송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02 의무교육 미이행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의무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일시·내용·참석자 기록이 없으면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 교육 효과를 입증하는 기록은 필수입니다..

03 사업자 선정 근거 부재

"거래하던 은행으로 했어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수익률 비교와 선정 사유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직원 민원·감사에서 취약점이 됩니다.

04 지속적인 거버넌스

기업(사용자)이 운용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 주체가 됩니다. 운용실적 정기 검토와 사업자 교체
역시 문서화 해야 합니다.

수치로 보는 퇴직연금 운용 현황

의무교육 및 기금형 전환 논의 시 참고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원리금보장형 실질수익률

DB, DC 1%미만

가중평균금리 2.81%
- 소비자물가 2.2%

"안전하다"는 말 뒤에
물가를 겨우 방어하는 수익률

디폴트옵션 안정형 비중

84.5%

적립금 56조 중 47조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에 편중

제도는 도입됐지만
행동은 그대로라는 평가

같은 TDF 빈티지 내 격차

16%p

TDF2050 기준
최고 20.25% vs 최저 4.23%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이나에 따라 완전히 다름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운용의 질은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 수익률은?

2026년 3월말 기준

$$[2.67\%] - [2.2\%] = [+0.47\%]$$

원리금보장 가중평균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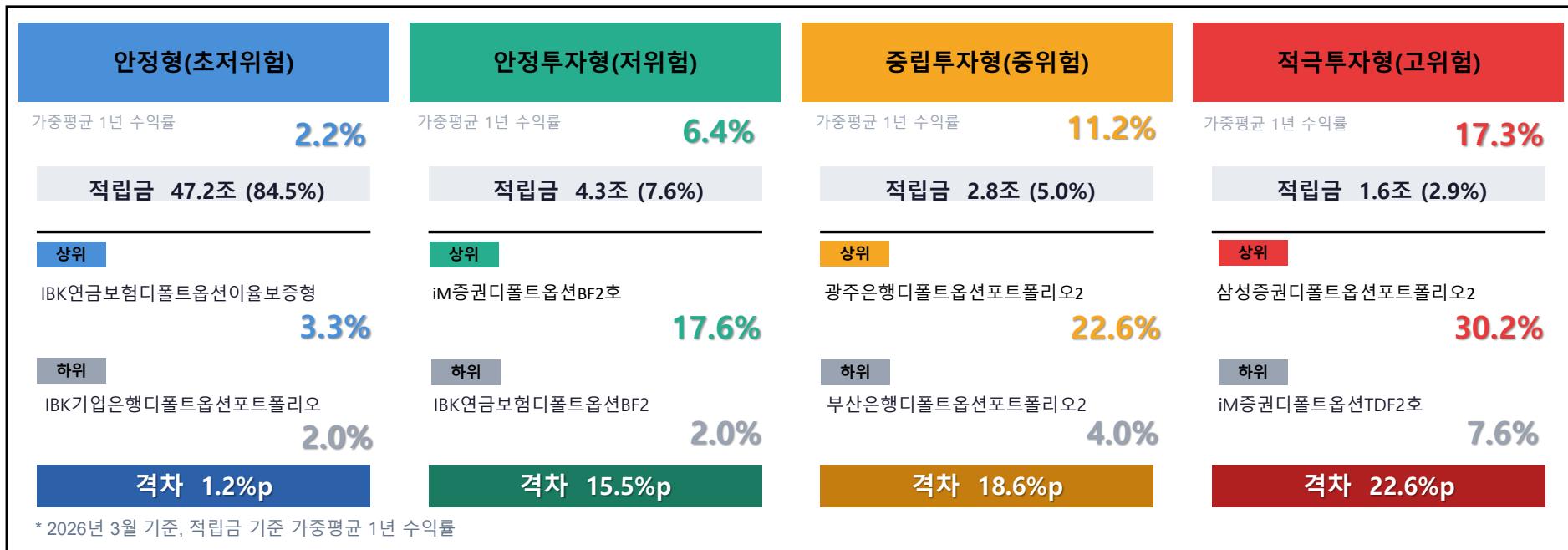
✦ 지금 직원들의 퇴직연금, 실질 자산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 수익률은 0.47%.

같은 기간 원리금비보장 평균 수익률 22.5%와 비교하면 격차는 약 20%p나 됩니다.

원리금보장 비중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직원 민원과 책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같은 위험도여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 84.5%가 초저위험에 몰려 있고, 고위험군에서도 상품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7%~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빈티지, TDF도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 2026년 4월말 기준 1년 수익률

TDF 2030

은퇴 4년 전후

최고 12.9%



최저 1.83%

차이 11.07%p

TDF 2040

은퇴 14년 전후

최고 16.47%



최저 3.26%

차이 13.21%p

TDF 2050

은퇴 24년 전후

최고 20.25%



최저 4.23%

차이 16.02%p

✦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 조정하는 TDF는 퇴직연금의 대표 상품이지만, 같은 빈티지 내에서도 운용사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최대 16%p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4가지



01 우리 회사 사업자 수익률 확인

지금 계약한 사업자가 업종 평균 대비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직원 민원이 생기면 담당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02 디폴트옵션 설정 검토 기록

2023년 의무화 이후 검토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의무교육 이수 증빙 보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의무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입니다. 실질적 교육 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04 기금형 도입 내부 검토 여부

2026년 기금형 제도 합의 이후,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회사 퇴직연금 현황을 점검할 때입니다. 글라이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1 법정 의무교육 — 퇴직연금 교육

글라이드는 고용노동부 인정 퇴직연금 교육기관으로, 기업의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합니다. 형식적인 이수가 아닌 실제 퇴직연금 운용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2 직원 퇴직연금 현황 분석

수익률 비교 · TDF 현황 · 원리금보장 비중 · 디폴트 옵션 설정 여부. 직원들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회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글라이드가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현황 진단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글라이드(한국퇴직연금데이터)는 매일경제신문과 MK-Glide TDF Index, 한국경제와 Best 퇴직연금사업자 어워즈를 운영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하기 →